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정착 지원

✎ 김도윤 기자 | ⌚ 승인 2026.09.28 13:49

추석 맞아 경로당 찾아 농지은행 주요 사업 현장 홍보 공공임대·농지연금·농지이양 은퇴직불 등 제도별 이용 방법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주요 사업을 알리며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의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지역 주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사는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 사업별 리플릿과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 내용과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지 소유와 이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에 나선 것이다.



추석을 맞아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에게 농지은행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광주지사가 추진하는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 매입·임대부터 경영 위기 지원, 고령농의 노후 보장과 은퇴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 창업농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영농 기반이 부족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임차임대사업은 고령농이나 비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지의 유희화를 줄이고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를 지원한다.

농업인이 자연재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운영한다. 공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다시 임차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영농 경력이 있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돕는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농지은행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